

CREDIA

ABOUT CREDIA

CREDIA INTERNATIONAL

CREDIA Projects

CREDIA Entertainment &
Theatricals

CREDIA STARSHIP

Club BALCONY & CIELOS Club

CONTACT

감동의 무대가 있는 곳에 CREDIA가 있습니다.

크레디아의 미션은 CREATIVE Media for the ARTISTS, SPONSORS, and AUDIENCE입니다.

크레디아는 1994년 설립된 이후 클래식을 중심으로 세계정상급 연주자들의 한국공연을 기획, 제작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한국출신 연주자들의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무대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CREDIA International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아날로그의 감성과 디지털의 접근성을 더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매니지먼트사로서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Club BALCONY & CIELOS Club을 통해서는 공연애호가들을 위한 공연정보 제공, 공연예매 및 할인, 아티스트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후원문화의 국내 정착을 위해 운영하는 CIELOS Club은 신예연주가 및 실내악, 현대음악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빈 필하모닉 크루즈 투어, 살롱음악회,렉처 등 수준높은 VIP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CREDIA Projects는 전국 공연장 및 페스티벌, 예술단체에 공연물 및 연주자들을 제안합니다. 매년 50회 이상의 크레디아 공연물들이 전국 공연장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를 사랑하는 기업들과 수많은 기업이벤트 및 후원, 협찬사업을 창출하고 있으며, 문화공간, 공연장의 위탁경영에서 프로그래밍까지 그 활동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크레디아의 공연은 클래식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999년에 첫 무대를 가진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와는 매년 전석매진의 신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재즈, 크로스오버 뮤직에서 연극, 발레, 뮤지컬, 캐나다의 아트 서커스까지 CREDIA Entertainment의 호기심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장르를 넘나듭니다.

크레디아의 퍼블리싱컴패니 CREDIA STARSHIP은 스타와 스타 프로젝트의 발골을 시작으로 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추억의 기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의 기획제작과 저작권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DITTO의 기록은 음원과 영상, 책으로 담았으며, 모바일 시대를 맞아 캐릭터, 게임, 전시분야와의 협력작업을 통하여 음악의 즐거움이 오래, 널리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크레디아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세상과 다시 만났습니다.

Creative & Credible Media가 되고자 했던 초심을 기억하며,

나와 당신의 음악, 즉 우리의 음악세계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정재욱
CREDIA 회장

CREDIA

ABOUT CREDIA

CREDIA INTERNATIONAL

CREDIA Projects

CREDIA Entertainment &
Theatricals

CREDIA STARSHIP

Club BALCONY & CIELOS Club

CONTACT

CREDIA INTERNATIONAL



이미 전설이 된 거장들의 무대 에서, 전설로 남을 샷별들의 무대까지

1995년 아이작 스톤,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이무지치의 내한공연을 시작으로 크레디아 인터내셔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빈필하모닉, 빈스타츠오페라, 시카고심포니, 로열콘세르트허바우, 이스라엘필하모닉, 런던필하모닉, 파리오케스트

라, BBC심포니, 몬트리올심포니, 이스라엘필하모닉 등 세계 정상의 오케스트라들이 크레디아를 통해 내한하였고, 주빈 메타, 세이지 오자와, 로린 마젤, 샤를르 뒤트와리카르도 샤이, 예사 페카 살로넨,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파보 예르비 등 거장들의 지휘에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세계적 화제를 모은 구스타포 두다멜의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 다니엘 바렌보임과 이스트웨스턴 디반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도 크레디아의 기획이었습니다.

크레디아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의 세계무대 데뷔 20주년, 25주년 기념무대를 비롯 홍혜경, 신영옥의 무대를 기획했으며, 플라시도 도밍고, 드미트리 흐보로스토프스키, 바바라 보니, 바바라 헨드릭스, 르네 플레밍, 갈리나 고르차코바, 브린 터펠 등 세계 정상의 성악가들의 한국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마지막 은퇴무대 역시 크레디아를 통해 국내 팬들을 만납니다.

CREDIA

ABOUT CREDIA

CREDIA INTERNATIONAL

CREDIA Projects

CREDIA Entertainment &
Theatricals

CREDIA STARSHIP

Club BALCONY & CIELOS Club

CONTACT

CREDIA INTERNATIONAL



요요 마, 예프게니 키신, 이차크 펄만, 안네 소피 무터, 미샤 마이스키, 기돈 크레머, 막심 벤게로프, 머레이 페라이어, 마르타 아르헤리치, 안드라스 쉬프, 백건우 등 거장들의 위대한 무대는 2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슈아 벨, 엠마누엘 파후드, 피터 비스펠베이, 프랑크 피터 짐머만, 미도리, 카뮈송 형제 등 이제는 중견이 된 연주자들, 그리고 유자 왕, 윤디 리, 장한나, 사라 장, 고토 류 등 천재라 불리웠던 연주자들의 모습들도 실시간으로 한국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승자 조성진이 참여한 2회의 쇼팽갈라 콘서트는 국내 클래식사상 최단시간 매킨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임동혁, 리처드 용재 오닐, 손열음, 지용, 스테판 피 재키브, 손열음과 클라라 주미 강 듀오, 신지아 등 객석을 가득 메운 K Classic의 돌풍 뒤에는 크레디아가 있습니다. 앙상블 디토를 비롯, 보컬앙상블 로티니, 목관의 희망 김한, 함경, 최나경, 그리고 이제 막 떠오르는 첼로 문태국, 피아노 문지영 등 크레디아는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을 응원하고 펼쳐주는 기획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크레디아는 매년 한국을 찾는 빈 소년 합창단을 비롯, 리베라, 로저 와그너, 스윙글 싱어즈 등 많은 합창단들의 한국무대를 만들었으며, 디즈니콘서트, 바비심포니, 동물의사육제 등 다양한 패밀리음악회를 기획합니다. 여름청소년음악회,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콘서트, 파크콘서트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클래식의 감동을 전하고 있으며, ECM페스티벌, 평화콘서트, 디토편페스티벌 등 국내외 클래식 페스티벌의 기획,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www.credia.co.kr



CREDIA

ABOUT CREDIA

CREDIA INTERNATIONAL

CREDIA Projects

CREDIA Entertainment &

Theatricals

CREDIA STARSHIP

Club BALCONY & CIELOS Club

CONTACT

CREDIA Projects



언제나, 어느곳이거나 무대와
후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찾아
갑니다.

1995년 바이올리니스트 미도리의 광주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전국의 공연장을 찾는 크레디아의 공연과 연주자는 늘고 있습니다. 2015~2016년 시즌에는 임동혁, 손열음, 양상블 디토, 유키 구라모토, 용재 오닐 등이 연간 10회 이상의 전국 순회공

연을 갖는 등 매년 50회 이상의 전국 투어가 기획, 진행됩니다. 빈소년의 신년음악회, 유키 구라모토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6월의 디토펙스티벌 투어공연 등 레퍼토리로 정착되고 있는 연례공연들도 늘고 있으며 페스티벌과 교향악단에 초청받는 크레디아 아티스트들의 기회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크레디아는 2002년부터 10년간 호암아트홀을 위탁경영하며, 신예연주자들의 발굴과 실내악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노

력했습니다. 용재 오닐, 김선욱 등이 독주 데뷔를 했으며, 손열음, 조성진, 김태형, 장유진 등 많은 스타들의 탄생을 지켜보았습니다. 뮤직알프 페스티벌은 후에 서울스프링페스티벌로, 세종솔로이스츠 상설프로그램은 대관령음악제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명동해치홀, 서초삼성오디토리움, 대관령음악제, 평화콘서트 등 문화공간의 운영 및 프로그램 컨설팅외에도 ISPA, FACP, APAP, CINAR 등 예술경영관련 컨퍼런스 및 아트마켓에 한국의 공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CREDIA

ABOUT CREDIA
CREDIA INTERNATIONAL
CREDIA Projects
CREDIA Entertainment &
Theatricals
CREDIA STARSHIP
Club BALCONY & CIELOS Club

CONTACT

CREDIA Projects



기업이 있는 무대, 무대가 있는 기업을 위해 크레디아는 20년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대카드와는 빈 필하모닉, 시카고 심포니, 로열콘서트허바우, 플라시도 도밍고 등의 슈퍼콘서트외에도 스태프 & 리슨, VIP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포스코 서울사옥 아트리움에서는 10년 이상 로비음악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동서식품과 진행해온 동서커피 클래식은 2017년 10주년을 맞습니다. 삼성, 대한항공, 현대, 대우증권, 롯데 등 대기업, 금융그룹의 대형고객행사들과 샤넬,

라프레리, 포르세 등 명품브랜드의 맞춤형 살롱이벤트들은 크레디아의 기획과 만날 때 더욱 커진 감동이 고객들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크레디아 기획공연 및 온-오프라인 미디어에 후원, 광고를 연결하여 더욱 많은 애호가들이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독일의 발트뷔네에서 열리는 파크콘서트의 감동을 한국팬들에게도 전하고자 크레디아는 자체 프로젝트로 크레디아 파크콘

서트를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0년 BBC심포니, 2011년 조수미콘서트에서 2016년의 디즈니콘서트, 피아노 파라디스에 이르기까지 7년째 절찬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야외공연의 진수를 보여주는 한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ur Clients >](#)

CREDIA

ABOUT CREDIA
CREDIA INTERNATIONAL
CREDIA Projects
CREDIA Entertainment &
Theatricals
CREDIA STARSHIP
Club BALCONY & CIELOS Club

CONTACT

CREDIA STARSHIP



크레디아 스타들, 스타프로젝트들의 오디세이가 시작됩니다.

10년 이상 크레디아와 함께한 유키 구라모토, 임동혁, 용재 오닐, 지용, 스테판 피재키브, 앙상블 디토를 시작으로 크레디아는 연주자들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했습니다.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의 전문화와 세계화와 함께 소속 연주자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상을 공연외의 다양한 퍼블리싱을 통해 기록하고 나누고자 크레디아 스타십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미 용재 오닐의 음반들은 10만장 이상 판매되어 클래식계의 베스트이자 스테디 셀러가 되었으며, 앙상블 디토의 10년간 무대는 음원과 영상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신지아, 아드리엘 김, 성민제, 스테판 피재키브, 지용의 음반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조수미의 국내데뷔 20주년 공연, 유키 구라모토의 10주년 기념공연은 DVD로 제작되었고, 앙상블 디토와 디토오케스트라의 홀스트 플래닛 연주는 세계최초의 3D 입체영상으로 시도되었습니다. 매년 뮤직비디오 작업을 병행한 앙상블 디토는 2016년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Moments of DITTO"라는 뮤직다큐필름을 제작하여 2016년 6월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최초로

극장상영을 시도합니다. 아울러 국제에미상 예술부문상을 수상한 "안녕?! 오케스트라"를 비롯 영화 OST, CF음악, 영화 OST에도 다양한 참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에는 베토벤의 음악들과 용재 오닐의 인생을 다룬 "나와 당신의 베토벤"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3만권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용재 오닐의 음악에세이 공감, 디토 사진집, 내인생의 삼중주 등 크레디아가 참여한 출판물들은 향후 e북과 SNS 미디어들을 통해 확대될 예정이며, 캐릭터, 게임, 전시분야와의 협력작업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Club BALCONY & CIELOS Club

15만 클래식 애호가들의 선택, 무대밖까지 펼쳐지는 감동의 무대

1994년 공연애호가들의 서비스확대를 위해 탄생한 클럽발코니는 크레디아와 따로 또 같이 그 영역과 활동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1995년 국내기획사 최초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같은 해 발간된 계간 매거진 클럽발코니는 2018년 4월 현재 88호까지 발행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예매가 가능해졌으며, 15만 온·오프라인 회원들에게 크레디아 및 제휴사 공연의 할인, 우선예매, 초대이벤트 참여, 프로그램 및 공연정보 제공은 물론 다양한 Life Style Program의 기획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크레디아 인터내셔널 외에도 대관령음악제, 통영음악제,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오페라단, KBS교향악단, 유니버설발레단, 국립극장, 코리아챔버오케스트라, 국제재단, 금호아트홀, JCC아트센터, 메가박스, 빈체로, 아트 앤 아티스트, 스테이지원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롤렉스, 포르세, 에르메스, 라프레리, 반클리프 & 아펠, 론진, 맥캘런, 랄프 로렌 등이 온·오

프라인 미디어를 장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암아트홀, 대관령음악제, 명동해치홀 등의 예매시스템 운영을 대행했으며, 금융, 명품그룹과의 CRM, 멤버십운영 컨설팅, VIP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럽발코니는 발코니석의 관객들을 존중합니다. 공연장의 발코니석은 연주자의 얼굴조차 희미하게 보이는 값싼 좌석이지만, 그곳에는 누구보다도 음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지닌 관객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발코니석의 관객들이 먼 훗날 순수예술을 격려하는 로열석의 관객이 되어 또 다른 발코니석의 관객들을 후원하기를 기대합니다.

CIELOS Club은 Club BALCONY의 초기미션을 존중하기 위해 2006년 출범했습니다. 개인, 민간후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신예연주자, 실내악, 현대음악 등 소외된 장르 및 젊은 관객들의 관람을 돕는 개인별 후원의 필요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VIP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 살롱이벤트를 통하여 연주자와의 만남, 럭셔리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늘고 있는 제휴사 초청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전시, 페스티벌,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씨엘로스클럽이 주관한 빈 필하모닉 크루즈투어는 2016년에 세번째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유럽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며 빈 필하모닉 단원들과 주빈 메타, 발레리 게르기예프, 랑랑, 토마스 햄슨 등 정상급의 연주자들이 펼치는 연주를 선상은 물론 명문 공연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빈 필크루즈투어는 씨엘로스클럽이 독점적으로 한국에 소개하고 있으며, 2018년 그 마지막 항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997년 북미 3대오케스트라 문화여행을 시작으로, 아르헤리치 베헤른음악제, 체코 프라하의봄, 마린스키백야페스티벌, 대관령 및 통영음악제를 찾는 문화여행 역시 20년의 전통을 기반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월트디즈니콘서트홀의 CEO 데보라 보다를 비롯하여 BBC 심포니, 런던필하모닉, 베헤른음악제 등의 대표가 들려주는 예술경영 리더 역시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씨엘로스클럽은 한번의 가입으로 평생회원 자격을 얻으며, 매년 10여회의 이벤트에 무료참여, 연간 패키지 할인 및 선예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www.clubbalcony.com

www.cielosclub.com



CREDIA

ABOUT CREDIA

CREDIA INTERNATIONAL

CREDIA Projects

CREDIA Entertainment &
Theatricals

CREDIA STARSHIP

Club BALCONY & CIELOS Club

CONTACT

CONTACT

CREDIA INTERNATIONAL

김혜성 팀장 luciakim@credia.co.kr

김인주 부장 injoo@credia.co.kr (International Classic)

윤혜진 차장 yun@credia.co.kr (Entertainment & Theatricals)

CREDIA PROJECTS

송희경 팀장 song@credia.co.kr

정다희 팀장 dahee@credia.co.kr (지역순회공연)

CREDIA STARSHIP

이강원 팀장 won@credia.co.kr

Club BALCONY & CIELOS Club

강민선 팀장 clubbalcony@credia.co.kr

Management

김소영 팀장 sso@credia.co.kr

(03044)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0길 30, 3층 (통의동6, 이룸빌딩)
(03044) 3fF E-rum Building, 30, Jahamun-ro 10-gil, Jongno-gu, Seoul, Korea
Tel +82-2-741-1763-5